

한국미술의 기원... 빗살무늬 패턴을 해석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빗살무늬토기의 비밀

김찬곤 지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당연한 명제가 되어버린 이 말은 흔히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실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지극한 이치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일례면 ‘아는 만큼 안 보인다’도 있을 수 있겠다. 잘 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체를 외면하거나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오감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호서대에서 강의를 하는 김찬곤 박사는 ‘아는 만큼 안 보인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의 빗살무늬 토기를 예로 든다. 기하학적 추상무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석기인들이 왜 추상미술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문한다.

김 박사가 펴낸 책 ‘빗살무늬토기의 비밀’은 도발적인 책이다. 기존에 알려진 상식을 뒤엎고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저자는 한국미술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신석기 빗살무늬토기를 전면에 내세워 미술사를 횡단한다.



우리의 빗살무늬토기는 1916년 평남 용강 용반리유적에서 처음 출토됐다. 올해로 106년째지만 “세계 학계도 우리 학계도 막연히 ‘기하학적 추상무늬’라고만 할 뿐”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저자는 우리의 신석기미술은 ‘구상미술’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의 실마리를 암사동 빗살무늬토기(서울 강동구)에서 찾았다. 물론 세계 기록을 살피고 세계 신석기 기록도 알뜰히 살폈다. 일반적인 세계 신석기인은 그릇에 구름과 비 패턴을 새겼다. 이에 반해 한반도 신석기인은 구름의 ‘기원’까지 담아냈다.

저자는 암사동 신석기인은 파란 하늘을 경계로 그 위에 구름의 기원 ‘하늘 속 물’을 두었으며 그 물은 천문을 통해 구름으로 내려온다고 설명한다. 다시 이 구름을 토대로 “비가 내리고 세상 만물을 깨우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세계 신석기인과 암사동 신석기인의 차이는 신의 존재 여부다. 전자는 구름을 만들고 주관하는 신을 상징하지만 후자는 하늘 속 물이 스스로 구름(통로)을 통해 구름으로 내려온다고 상징한다.

저자는 한반도 빗살무늬토기의 무늬를 모두 다섯 가지로 본다. 하늘 속 물(水)과 천문(天門), 경계(파란 하늘), 반원(타원)형·삼각형 구름, 빗줄기, 귀하로 흘러가는 비(雨)가 그것이다.

“암사동 신석기 장인은 구름을 삼각형과 반원(타원)형으로 새겼는데, 반원형보다는 삼각형 구름이 더 많다... 그릇 전체 모양은 둥근 형태인데 그 둥근 도상 속에 다시 곡선 구름을 새기는 것보다는 각진 삼각형 구름을 새기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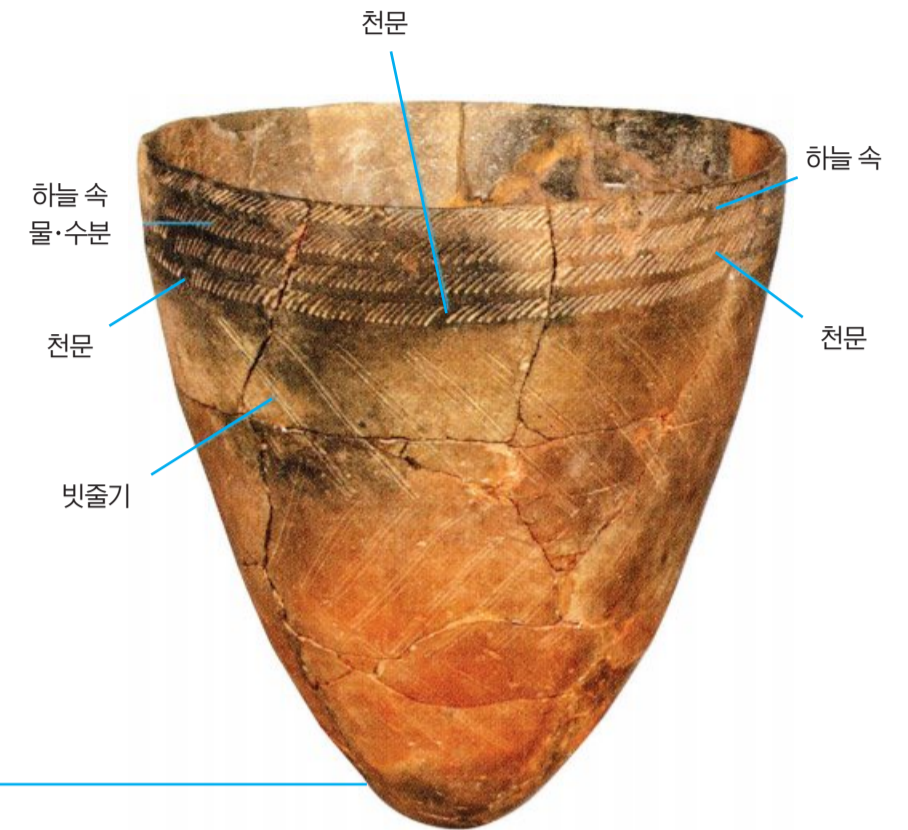
아울러 저자는 터키 과베클리 테페의 핸드백(stone bag) 분석을 통해 서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신석기 세계관의 차이를 주목한다. 한반도 신석기 미술에서 종교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원의 기원’까지 담고 있는 세계관에는 “신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저자의 상상력과 호기심, 연구 열정은 구석기 자연주의 전통이 살아 있는 제주 고산리 덧띠무늬토기(제주)까지 이른다. 이 그릇의 공식 명칭은 ‘고산리 용기문토기’다. 그러나 저자는 저절로 올라온 무늬(용기)가 아니라 일부러 흙띠(덧띠)를 붙여 표현했다고 주장한다. 가장 위의 가닥은 하늘(天), 아래 두 가닥은 구름(雲)으로 본다.

이밖에 저자의 시선은 한반도를 벗어나 그리스 기하학 시대 미술에까지 확대된다. 세계 기하학적 추상미술과 관련한 개념을 살펴보면 고프리치, 쟈슨, 하우저의 신석기 미술 논지도 소개하며 논리적 모순도 정리한다. 책에는 빗살무늬토기를 모티브로 중형무늬 경계를 뛰어넘는 관점과 활발한 상상력과 치열한 연구 열정이 곳곳에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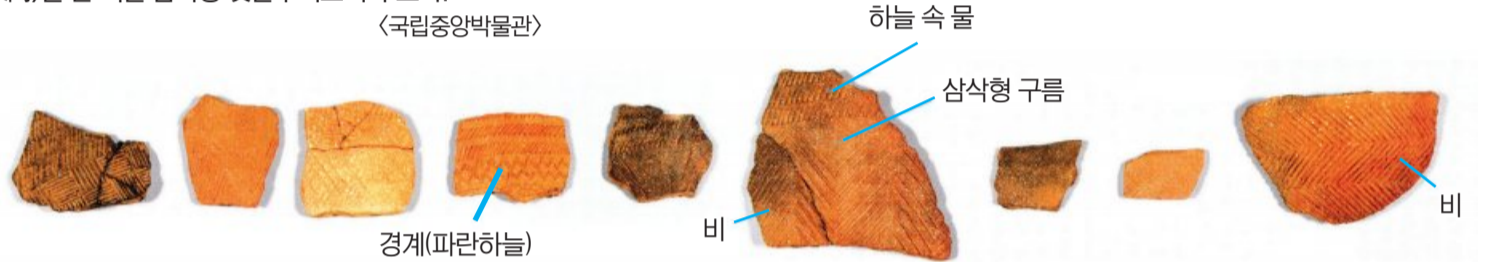
〈뒤란·3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하늘 속 물(水) 층을 4층으로 새기고 그 사이사이에 천문(天門)을 둔 서울 암사동 빗살무늬토기와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 지음, 박상미 옮김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한 20세기 철학자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알려진 빅터 프랭클. 그를 이야기할 때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빼놓을 수 없다. 그곳에서 경험을 토대로 그는 제 3 번 학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를 창시했다.

로고테라피는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고 고통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다시 말해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도 가치 있는 업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의 연구의 시작과 끝은 ‘사람중심’이었다. 오직 환자를 통해 배우고 환자의 말에 귀 기울였던 의사이자 치유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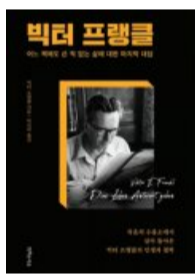
빅터 프랭클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빅터 프랭클’은 삶에 지치고 미래가 막막한 이들에게 건네는 책이다. 이시영 한국미치로학회 회장은 “이 책은 죽음의 수용소와 다름없는 위기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삶에 대한 답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상찬했다.

빅터 프랭클은 어린 시절 평생의 화두와 같은 질문에 접한다. ‘언젠가 죽는데 삶의 허무함 때문에 의미를 잃어버린다면’이라는 질문은 그에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다. ‘죽음이 삶을 의미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강제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를 잃어버리는 가혹한 경험은 로고테라피 이론 정립으로 이어졌다. 죽음이 결코 삶에 드리워진 다양한 의미를 방해할 수 없다는 요지다.

그는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도 가치 있는 업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는 오늘, 빅터 프랭클의 말을 한번쯤 떠올려보면 한다. 〈특별한 서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멸망 이전의 상그릴라

나기라 유 지음, 김선영 옮김

2020년 미야와키 서점 선정 베스트5, 2021년 일본최대서점 키노쿠니야 직원들이 뽑은 최고의 작품 1위, 2020년 서점대상 수상작가... 일본 서점 대상 수상 작가의 역대 최고작으로 꼽히는 ‘멸망 이전의 상그릴라’. 작가 나기라 유는 어두운 소재를 그만의 필법으로 풀어내는 소설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의 이번 소설은 소혹성 충돌로 지구의 멸망이라는 다소 의속한 모티브다. 그러나 작가가 따라 소재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듯, 나기라 유는 독창적으로 접근한다. 관계를 다루는 부분에서 섬세한 감정묘사와 인간사의 본질을 포착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던 작가의 장기가 드러난다.

소설은 ‘상그릴라’의 주인공인 고교생 에나 유키가 작은 흑성의 충돌 뉴스를 듣는 것에서 전개된다. 오랫동안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과 곧 멸망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주인공인 ‘퍼펙트 월드’의 캄배 메지카라 신지도 에나 유키와 다를 바 없는 처지다. 신지는 세상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살인행위를 받아들인다. 그러는 찰나 들려온 지구의 멸망 소식에 그는 어리둥절해진다.

소설은 이밖에 미혼모, 거식증 걸린 인기 가수가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네 명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작품은 이렇듯 지구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을 상징하고 전개돼 긴장과 흥미를 선사한다. “누구보다 ‘나’를 미워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싶었어”라는 말은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시대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한스미디어·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헌책방 기담 수집가

윤성근 지음

“책을 읽고 힘을 얻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자 혼자 여행을 한다는 건 단순히 용기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저는 박완서 작가의 책을 읽고 그 즉시 집을 쫓겨 여행을 떠난 것 처럼 조금 멋을 부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한달 넘게 고민했어요. 책 속의 결정적인 문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국 고민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자연은 홀로 있는 사람에게만 그의 내밀한 속삭임을 들려준다’. 저는 이 문장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책방 기담 수집가’는 절판된 책을 찾아주는 대신 이들의 사연을 수집해온 사람의 이야기다. 헌책방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저자 윤성근이 주인공으로, 10년 넘게 고객들이 가져온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책을 찾아냈다. “오래전 절판된 책인데 찾을 수 있을 까요”라는 손님에게 그는 “해봐요. 대신 수수료는 왜 그 책을 찾으시는지, 책과 얽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말한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중고책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자의 ‘본업’은 책에 얽힌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다. ‘사랑’, ‘가족’ 등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그렇게 모인 사연 가운데 가려 뽑은 스물아홉 편을 통해 감동과 미스터리가 어우러진 특별한 여정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지닌 매력은 사연들이 단지 회고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때론 무섭기도 하고, 때론 맥이 탁 풀릴 정도로 황당하기도 하다. 책 제목을 ‘헌책방 사연 수집가’가 아닌 ‘헌책방 기담 수집가’로 붙인 이유다. 책에 얽힌 사연과는 별도로 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 처럼 흥미롭다. 〈프시케의 숲·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